

행복중심 복합공간 들어선다

순창, 구 보건의료원 전면 리모델링... 실시설계 완료 올해 말 완공 예정

순창군이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행복누리센터' 건립 사업에 나서 군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군이 추진하는 '행복누리센터'는 다양한 복지공간과 문화 공간이 함께 하는 복합공간으로 국비 등 총 31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군은 구) 보건의료원 건물 지하 1층, 지상4층, 연면적 4,021.1㎡에 대해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이달 본격 착공해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전 연령층이 복지 혜택과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의 새로운 행복 중심 복합공간이 된다는 데서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쉼나무 아동돌봄센터는 지역의 만 3세~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맞벌이 부부의



순창군은 구)보건의료원 건물 지하 1층, 지상4층, 연면적 4,021.1㎡에 대해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육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출산율까지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순창군 일자리 지원센터가 만들어 진다. 청년들의 일자리 연계는 물론 창업 등을 지원한다. 또 청년토크방 등이 설치돼 지역 청년들의 교류 공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노인층을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가 눈에 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치매등록 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교실 운영, 치매치료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치매 걱정없는 남원 '안심센터' 10월 개소

사업비 9억5000만원 확보, 환자·가족 정서적 안정 도모·통합서비스 제공

남원시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에 발맞춰 보건소 부지내에 치매안심센터(연면적 469㎡)에 2층 규모를 오는 10월 개소한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난해 국도비 7억4,000만원 등 총사업비 9억9,500만원을 확보해 사무실, 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쉼터와 가족을 위한 가족카페를 설치해 치매어르신들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장이 센터장인 치매안심센터는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상담 등록관리팀, 조기검진팀, 쉼터팀, 가족지원팀, 인식개선홍보팀 등 5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상담, 치매조기 검진, 치매진단, 치매환자와 가족지원을 위한 각종 인지 프로그램, 찾아가는 치매상담, 예방교실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치매통합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남원시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에 발맞춰 보건소 부지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오는 10월 개소한다.

남원시보건소는 지난해 12월부터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치매전문 인력 6명이 치매안심센터 시설이 완공되기 이전까지 치매상담, 조기검진 및 등록, 사례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운영 등 기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순례 보건소장은 "치매는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되면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시민공감 5가지 테마 시책 시동

이한주남원시장,친절·문화·소득향상 등 발굴 주문

이한주 남원시장이 민선 7기 시정이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 그에 맞는 신규 시책들을 발굴하도록 주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2019년 시책사업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5가지 테마 주제를 선정해 발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첫째는 친절한 공무원으로 무엇보다 민선 7기 남원시 공무원은 매우 친절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시민을 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에 몰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1부서 1감동 친절시책을 개발하고 일하는 분위기 개선을 통해 남원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시민이 시정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공감시책으로, 최근 도 통동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시민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이 생겼는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생활 공감 시책과 치매노인 실종 예방 기기 보급,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육아공통체 지원 사

업 등 시민들이 좀 더 체감하며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셋째, 시민들이 문화도시를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으로, 남원은 전국 최초 문화도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이를 누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연계해 문화도시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넷째, 주민 소득향상으로, 사람이 성장하는 도시, 청년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보급과 일자리 발굴, 공유경제 활성화 등 시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좀 더 풍요로운 남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다섯째,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등을 확대하며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갈 시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책발굴 계획 안에 시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듣기 위해 10월 간(8.1~8.10) 시민의견 수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물놀이사고 예방 총력

순창군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물놀이 가능성이 높은 7개면 17개소 물놀이 장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달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물놀이 사고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대책은 물놀이 사고 안전요원배치다. 군은 지난달 4일부터 일부터 장군목과 향기유원지 등 17개소 물놀이 장소에 30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안전요원들은 21일까지 물놀이 장소에 상주하며 사고 예방활동을 펼친다.

군은 안전요원배치 전 심폐소생술 구조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해 현장배치를 추진해 사고 대응능력을 높였다. 또 구명환, 구명조끼 등 물놀이 안전장비를 비치하고 위험 안내 표지판도 정비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또 물놀이 취약시간대와 주말에는 집중 근무를 실시해 취약시간대 순찰 및 계도방송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물놀이 사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안전요원 배치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임실군이 1일부터 9일까지 2018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1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그동안 29명에게 4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단계 예산은 4000만원이다

선발된 최종 사업 참여자들은 군립도서관 등 11개 사업장에 각각 배치돼 서비스지원 및 환경정화 업무를 하게 되며 4대 보험 가입 지원 및 주차월차 상당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임실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돼 있는 주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야 한다. 대상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 중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정기 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적 연금 수령자, 연수 2년 초과 재정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등은 사업선발에서 제외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 수출기업인 협의회 개최... 해외 판로개척 온힘

지역 농식품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앞장서고 있는 임실군이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1일 간부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의 수출품목 다변화와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인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7월 관내 농·식품기업인 공마음이 베트남 수출의 고도화를 확보하게 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공마음은 베트남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및 수출계약을 통해 K-Food(케이푸드)에 대한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동안 지역 수출에 스타트를 끊었다.

이를 토대로 임실군은 민선 7기 지역 농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수출 다변화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협의회 역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과 수출기업인간의 협업을 도모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과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을 비롯한 치즈, 생야, 원예, 버섯 등의 농·식품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관내 농·특산물의 수출 가능성에 대한 검증 및 시장개척을 위한 행정의 역할·지원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행정에서는 수출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수출 농산물 물류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하는 등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방안 마련에 앞장서기로 했다.

박진두 부군수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관내 농·식품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농·특산물의 지역 내 총 소비의 한계로 유통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만큼 수출을 통한 유통 다변화로 농·특산물의 가격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